

# 雲門

불기 2566년  
봄호  
통권 제159호  
雲門寺增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흐르는 물에 떨어진 꽃잎 따라 봄은 가고, 천상인가. 인간세상인가. / 서운 대교과
- ❖ 봄꽃 같은 신입생님들 미소 속 피어나는 부처님 마음. / 문광 대교과
- ❖ 알록달록, 울긋불긋, 살금살금~ 시방세계 장엄하리 봄꽃부처님 나투셨네~ / 보선 사교과
- ❖ 부처님 경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전한 부처님 법의 그릇 되어지이다\_0\_ / 진하 사교과
- ❖ 걸어가다가 목련 향기에 활짝 웃고, 다시금 목련에 코 박고 소소함 즐기는 봄철의 운문사, 안녕하십니까? / 안정 사교과
- ❖ 운문사의 봄꽃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경운 사집과
- ❖ 봄에는 꽃이 피고, 마음에는 향을 피우고… / 보명 사집과
- ❖ 다시 돌아온 봄, 물물物이 각득기소各得其所라 조화롭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 도솔 사집과
- ❖ 목련 꽃 아래 새로운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 / 덕유 사미니과
- ❖ 따스한 봄별 눈을 녹이듯, 자비로운 부처님 광명 내 마음속 번뇌 녹이네. / 혜석 사미니과
- ❖ 파란 봄, 노란 봄, 하얀 봄… 각자의 봄! 모두의 봄! 활짝 펴네~ / 선우 사미니과

# 雲門

## 목차

- |   |  |
|---|--|
| <br><br> | <p>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p> <p>04 죽림현 봄바람과 코로나와 사과나무, 그리고 계戒 병성</p> <p>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또, 다시 운문雲門으로… 일진</p> <p>08 교수논단 청허류정清虛休靜 선시禪詩 연구 [2] 원법</p> <p>12 수행의 두례박 하나 즉사이진即事而真 그리고 기차 소풍 서묵</p> <p>14 학인논단 법화칠유法華七喻 [1] 경문</p> <p>18 선배탐방 한 생각을 잘 일으켜야… – 법림사 주지 무진 스님 – 현밀</p> <p>23 想 신심견고 영불퇴전信心堅固 永不退轉 영원</p> <p>24 외부기고 1 티베트 전통 무문관 흑방 폐관수행 청전</p> <p>29 풍경소리 도반 혜성</p> <p>30 수행의 두례박 둘 길을 갑니다 승연</p> <p>32 방부소감 봄꽃으로 피어나는 차문반 스님 차문반</p> <p>34 외부기고 2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세요! – 은사스님께 온 편지 구화</p> <p>36 자유기고 1 사식법四食法 – 내 안의 아귀我鬼 정연 上</p> <p>38 운문만행 언제나 현재진행형 – 오백전 100일 기도 효민</p> <p>40 운문, 운문인 법의 향기 기득 운문에 핀 봄 편집부</p> <p>42 차례법문 소박한 기도 치명</p> <p>44 자유기고 2 임종臨終 환경 각연</p> <p>46 이 한 권의 책 「불교의 세시풍속」을 읽고 –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혜첨</p> <p>48 운문논평 증생이 회합하니 법화法華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하네 편집부</p> <p>50 운문소식</p> <p>51 등불 운문사 동호銅壺</p> |
|---|--|

## 봄바람과 코로나와 사과나무, 그리고 계戒

명성 / 운문사 회주



2020 경자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2년 전에 느꼈던 심각한 우려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극복하고 일상적인 질병으로, 위드코로나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2022년 4월 12일 방역당국에 의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모두 1,563만 5,274명이며,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가 1만 9,850명이나 되며 지금도 매일 30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승가僧伽와도 무관할 수 없이 운문사승가대학雲門寺僧伽大學도 보름이나 개학을 늦추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 스님들과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성숙해진 학인들의 모습을 최근至近거리에서 늘 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마음은 늘 학인들 곁에 머물며 함께 한다는 것을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다시 알게 됩니다.

범세계적인 병겁病劫을 맞아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질시가 일어나고, 차츰 두려움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 각자 소속된 경계 속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마스크와 백신에 열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속에서 차츰 재택과 비대면 속으로 적정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면역강화의 비법들을 공유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위화감을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전 국민의 성숙한 인지와 준법정신 속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투철하며 신속 정확하게 극복해내는 성숙한 모습들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속에서 행여 일어날 수도 있는 예측 가능한 또 다른 공업共業으로 전체적 불안과 비극이 발생할지라도 남 탓하지 않고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서로 껴안고 최후의 한 순간까지 사파나무를 심는 각오로 공업을 녹여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산승의 이러한 공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재人災나 천재天災로 세월이 수상할 때는 소욕지족少欲知足과 이욕離欲으로 수신守身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승가에서의 수신守身은 계율에 있습니다. 계율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교계승 선사明教契嵩禪師는 「존승편尊僧篇」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몸을 막음에 계戒가 있고 마음을 거두어들임에 선정禪定이 있으며, 분명하게 판단함에 지혜가 있다. 계는 흑업고惑業苦의 삼혹三惑을 청결하게 하여 이 몸이 다하도록 다시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선정禪定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정신을 맑혀서 종일도록 혼란하지 않도록 하며, 지혜로는 덕을 숭상하고 반드시 미혹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의 인因이 되며 성불成佛하는 과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인스님들도 계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어 일체 중생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제救濟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

## 또, 다시 운문雲門으로…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윤주

1995年 6月 18日 일요일 맑음

아침 7시 30분 서장반 58명의 수업을 처음하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정확히 7년만인 가 보다. 이렇게 교단에 다시 서게 되는 일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다. 처음 만남의 인사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一真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이런 저런 답이 있었다. 자비, 윤회 등등) 저는 ‘인연因緣 즉 연기법緣起法’이라고 이 순간에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此有故彼有 彼有故此有”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관계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함으로 해서 서로를 불행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슬픈 관계가 있는가하면, 서로 돋고, 성취하고 행복해지는 관계로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도움이 안 되는 관계일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이 실사외롭고 힘들더라도 혼자서 묵묵히 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혼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동체의 수행기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여럿의 관계를 쭉욱 인연을 만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만나서 행복한 관계가 되도록 정진합시다.

저는 스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승學僧의 신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입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큰방에서 방부 드리는 절을 사방을 향하여 여러 번 하면서 매우 지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지는 나의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리듯 학인스님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릴하고 좋은 회향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선택한 길에 환희를 더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며 행복한 수행자가 됩시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장이라는 과목을 중간에 한다고 생각지 말고, 오늘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서장書狀』은 대혜 선사大慧禪師의 여러 가지 교시敎示가 수록된 편지입니다.

『대혜서大慧書』라고도 하지요.

40명의 사대부중 중 1명은 여성이고, 스님도 두 명 있지요. 40명에게 보낸 62통의 서간문을 편집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인간변혁서人間變革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장부大丈夫 즉, 그 당시 벼슬했던 대혜의 재가 제자들은 다 같이 총명영리하고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 한 시대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간주본성人間主本性을 회복하고 본원本源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일일이 간절히 일깨워 주신 편지들입니다.

둘째, 대혜 선사의 특색이 현실에 깊이 파고들

어 그 치부恥部를 용시하며 근본뿌리부터 타개하며, 특히 사대부중의 정신구조를 철저히 변혁함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 서장을 공부해나가는 데 몇 가지의 요구사항입니다. 만일에 무리하다면 이야 기해도 좋습니다.

첫째, 그날 공부한 원문을 입선시간에 합송습誦으로 3번 이상 독송할 일. 효과는 화합, 환희심, 신심의 증장입니다. 자신의 소리와 함께 도반들의 소리로 그 메아리를 들으며 의미도 되새김과 동시에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루 20분 정도 좌선할 일. 화두가 있으면 그것을, 아직 없으면 '서장' 중에서 택할 일.

셋째, 노트를 반드시 할 일.

무엇이든 쓰고 싶은 것을 써도 좋음. 감명 깊은 글귀, 해석, 강의 설명 중에 기억하고 싶은 말, 자신이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 행상 등등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기록할 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첫 수업은 시작되었다.

'삼세일체동三世一切同'이라 했던가? 나의 운문생활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마 오게 될 미래에까지도 나는 여한 없이 운문雲門에 노닐 것이다. ☺



편집자 주注 : 일진 율주스님의 일기장 중에서 발췌한 위의 내용은 일본유학 중 – 그때 운문사 헝편상 졸업 전 논문학기 중에 사집반 강의를 하시던 첫날의 추억이라 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학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날의 마음과 별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스님의 표정은 영락없이 학인 같으셨습니다.

# 청허휴정清虛休靜 선시禪詩 연구 ②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선시상즉禪詩相即의 격외시格外詩
- III. 재도지기載道之器의 설리시說理詩
- IV. 시중유화詩中有畫의 산거시山居詩
- V. 맷음말- 휴정 선시의 특징과 의의

## IV. 시중유화詩中有畫의 산거시山居詩

휴정의 시 '가을을 감상하다'에는 그의 시관詩觀이 잘 드러나 있다.

遠近秋光一様奇 원근의 가을빛 한가지로 놀라  
운데  
閑行長嘯夕陽時 석양에 한가히 거닐며 긴파람  
부네  
滿山紅綠皆精彩 산 가득 울긋불긋 다 곱고 고  
운데

流水啼禽亦說詩 물소리 새소리 또한 시를 이  
야기하네

〈賞秋〉<sup>15)</sup>

저녁노을 지는 산수 간을 한가히 노니는 그의 마음에는 흐르는 물소리, 우는 새소리 등이 모두 시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한閑이며 공적空寂이다. 한가로움은 선禪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한 마음자세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의 자리에서 노니는 선사의 모습을 뜻하기도 한다. 이 한閑에서 바라보는 대경對境이 모두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사의 시에는 자연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측면보다 산수 간은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한가로움에서 비롯되는 능�能所가 나누어지지 않은 주객미분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자성自性의 현현顯現이 곧 대경이요, 대경이 곧 자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는 한가로운 마음에서 펼쳐지는 활발발한 마음작용이다. 아래의 시에서도 휴정의 한가로움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난다.

菜根兼葛衲 나물뿌리 씹고 누더기 걸친 몸  
夢不到人間 인간 세상은 꿈도 꾸지 않는다네  
高臥長松下 소나무 아래 높이 누우면  
雲閒月亦閑 구름도 달도 한가롭네  
〈送鑑禪子之雲遊四中其二〉<sup>16)</sup>

이 시는 운수 간을 유행하려 가는 선객을 보내며 지은 시 4수 중 그 두 번째 수이다. 나물뿌리 먹고, 누더기 걸치고, 인간사를 둉진 승려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보이고, 다음 구에서 그러한 삶의 멋을 보여 주었다. 푸른 높은 소나무 아래 누워서 보면 구름도 달도 한가롭다고 한다. 구름에 달에 이입한 청허의 살림은 한가로움이 다이다.

아래 '조보진에게 부치는 시'는 산수 간에 머물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시로 표출될 때 한 폭의

그림이 팀을 보여 준다.

世上風騷多有累 세상의 시는 허물을 많이 끼  
치나니

只宜流蕩不宜閑 행락에나 적당할 뿐 한가함에  
는 맞지 않네

君詩定是吾家畫 그대의 시는 정녕 우리 집안  
의 그림이라

半說雲烟半說山 반은 구름과 안개요 반은 산  
얘기로세

〈寄趙葆真〉<sup>17)</sup>

세상의 시들은 행락하는 것에나 적당하지 한가  
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한가함은 앞에  
서도 살폈듯이 휴정이 추구하는 깨달음과 그 깨달  
음에 이르기 위한 물욕에서 벗어난 한가함인 것인  
다. 휴정이 추구하는 시들은 세속의 시가 아닌 한가  
로움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작시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은 구름이요, 반은 산이라는 조보진  
의 시를 두고 ‘우리 집안의 그림’이라고 한 것은 승  
려들의 일상이 곧 “시중유화詩中有畫”로 승화됨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에 사는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되 산에 사는 사람은  
이미 한閑을 몸소 체험한 이들로 그들의 삶이 산거  
시를 통해 형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閑<sup>18)</sup>, 공적空寂한 자성自性이 펼쳐 있  
는 대경을 그림 그리듯 읊은 시를 보자.

暮山客迷路 어스름 산속에서 길 잃은 나그네

節驚宿鳥心 지팡이 소리에 자던 새가 놀라네  
鍾鳴西嶽寺 서산의 절간에서 울리는 종소리  
松竹碧雲深 송죽과 푸른 구름 깊어라

〈遊西山〉<sup>19)</sup>

휴정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산을 유람하였나  
보다. 산속은 더욱 빨리 어둠이 깃든다는 사실도 잊  
은 채 말이다. 하여 부리나케 지팡이를 재촉하는데  
이 소리에 새들이 퍼드덕하고 놀란다. 서산에서 노  
닐던 서산이라 자청하는 객이 서산에서 길을 잃었  
단다. 부산하게 길을 찾으려 애쓰던 휴정은 서산에  
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리는 송죽과  
푸른 구름 깊이 그 울림을 가져다준다. 이제 서산은  
더 이상 서산에서 길을 잃고 혜매는 일이 없다. 단  
순한 상황 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두운  
무명에 가려 길 잃은 서산과, 길을 잃고 혜매기 때  
문에 다른 조용한 이들까지 놀라게 만든 휴정 자신  
의 삶을 우의寓意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사  
의 울리는 종소리는 바로 무명을 깨우는 법음이다.  
서산의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의 울림이었을 것이다. 자성이 부르는 소리는  
소나무나 대나무나 구름 아니라 그 어느 곳인들 미  
치지 못하겠는가?

이처럼 시중유화詩中有畫의 시들은 단순한 그  
림을 보듯이 물경物景을 그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본분사를 잊지 않는 선사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시로 그려낸 그림 속에 무궁  
한 의미를 볼 수 있다.

15) 休靜 撰『清虛堂集』韓佛全 7, p.696b

16) 休靜 撰『清虛堂集』韓佛全 7, p.683c

17) 休靜 撰『清虛堂集』韓佛全 7, p.696b

18) 『清虛堂集』에는 실린 시에는 35번의 한閑자자가 사용되고 있다.

19) 休靜 撲『清虛堂集』韓佛全 7, p.680b

泥爲青石髓 진흙이 푸른 돌의 골수가 되었고  
松作老龍鱗 솔 거죽은 늙은 용의 비늘이 되었네  
犬吠白雲隔 흰 구름 너머 개 짖는 소리  
桃花洞裏人 복사꽃 피는 골 속 사람이네

〈花開洞〉<sup>20)</sup>

진흙이 세월에 흔적을 못 이겨 마침내 굳어서 딱딱한 돌이 되었다 한다. 또 구불구불 소나무를 용으로, 소나무 껍질을 용의 비늘로 그려 내어 놓았다. 1구는 시간적으로 변한 모양을 통해 무름을 딱딱함으로 고정화시켰고, 2구는 현상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소나무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화개동〉은 이 두 구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3·4구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그것도 개짖는 소리로 말이다. 이 개짖는 소리는 무릇도원을 가리킨다. 한나라 때 유안劉安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온 가족을 끌고 승천할 때 개와 닭도 그릇에 남아 있던 단약을 할아버하고 같이 올라갔다는 고사를 끌어온 것이다. 〈화개동〉을 시간적 혹은 형상적인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보여 주었고 개짖는 소리로 신선골이 인간적인 모양으로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관조하는 타자로서의 독자는 휴정의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시적詩的 공간 속에 함께 그려진다. 〈화개동〉은 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인 경물을 가져와 초탈화 한 휴정의 시적 형상화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인간과 친숙한 개를 통해 신선 사는 곳을 펼쳐내는 것은 휴정의 시선이 선경과 속 진을 가리지 않고 있음과 더불어 선경과 속진이 한 평등선상에서 만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휴정의 시에는 “직접 선화禪話를 시화

詩化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선적禪의 유유자적을 단순한 시로 구사하는 것도 있었는데”<sup>21)</sup> 순수 시작의 기행시나 산거시를 그려 내놓은 작품들이 상당하다.

## V. 맷음말- 휴정 선시의 특징과 의의

이식李植(1584~1647)은 『청허당집』 「서문」에서 휴정의 시문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의 말은 은연중에 현묘한 뜻에 계합되는 가운데, 성률聲律에 구애받지도 않고 대구對句 역시 잡되지 않으면서 의취意趣가 고매하고 기봉機鋒이 예리하였다. 요컨대 불자를 세우거나 지팡이를 잡는 등 그 위에서 얻은 것이니, 관휴貫休나 광선廣宣의 무리가 아침에 신음하고 저녁에 탄식하면서 소인騷人 묵객墨客의 시와 비교하여 자구字句나 뜯어고치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 더구나 청허자로 말하면 한 시대 선문禪門의 종장宗匠으로서 자성을 보고 마음을 밝혀 깨달은 점이 있으니, 그 정영精英의 발로가 이와 같은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sup>22)</sup>

택당의 말을 빌리자면 휴정의 시는 성률이나 대구에 구애받지 않고 잡되지 않으면서도 뜻이 고매하고 기봉이 예리한데 이 모두가 정영의 발로라는 것이다.

휴정의 선시의 특징은 우선 선시 상족의 격의 도리를 옮고 있다. 이들 시는 외외낙낙한 기상과 주객미분의 무위진인의 경지를 대구 등에 구애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지를 2·3 또는 3·2의 구성으로, 또는 언어도를 끊은 동사의 사용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휴정은

20) 休靜 撰 『淸虛堂集』 韓佛全 7, p.678c

21) 이종찬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1985, p. 161

22) 休靜 撰 『淸虛堂集』 《淸虛堂集序》 (H7. 659a) “是其言也 真着玄契 不拘聲律 不雜排比 而意趣超邁 機鋒迅利 要於堅拂拈搘上得之 非若貫休 廣宣輩 朝吟暮唱 以與騷人墨客較韻惟而已也 … 別惟淸虛子 既爲一代禪宗 見性明心 有所悟解 卽其精英之發 固加是矣”

오언절구를 주로 사용하였는데<sup>23)</sup> 장황한 수식보다도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상징적으로, 가식적 인데서 벗어나 담담한 의취를 담고 있다. 오언절구의 간결성은 곧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선사의 기질에 잘 부합되었던 것이다. 이때 상징과 역설, 비논리, 비유 등 이심전심,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시에서의 보편적인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 모두는 깨달은 마음 즉, 자성에서 발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택당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다. 이 격외의 선 도리를 시와 하나 된 경지로 보여 준 시들은 자성의 발로요, 시와 선, 선과 시가 하나 된 선시일여의 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선시일여의 또 하나의 측면인 가르침을 설명적으로 보여 준 재도자기<sup>載道之器</sup>의 설리說理적 경향의 시들을 살폈다. 이들 시에서는 교를 하는 이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며 선과 염불이 둘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들 시가 담고 있는 주제는 언어도가 끊어진 깨달음의 자리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설명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 서술형으로 시화詩化한 시들이 곧 선을 싣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시에서는 대체로 용사用事나 전고典故를 사용하였고, 동어의나 접속사를 쓰되 문자의 배치와 그 배치가 가져오는 시각적 묘미와 의미를 극대화 시킨 특징이 있다. 앞의 격외시는 시가 곧

선이요, 선이 곧 시라는 의미의 선시일여라고 한다면, 이 설리시는 시가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하는 세계가 곧 깨달음 혹은 가르침의 자리인 선시일여이다.

마지막으로 산중에 머물려 사는 승려들의 일상을 읊은 시를 시중유화詩中有畫의 산거시<sup>山居詩</sup>로 살폈다. 이들의 시에는 그림을 보는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때 휴정의 정서는 한가로움<sup>閑</sup>을 몸소 체달한 삶이 산거시를 통해 형상화 되었다. 청허라는 호가 말하듯 그의 시는 청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담하게 작시한 작품들은 조선후기 순수 기행시나 산거시문학의 영역을 개척하는 계기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상 살펴 본 바 휴정에게 있어 시는 곧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였으며, 불법의 체와 수행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편이었고 한閑의 정서를 표출해 내는 세계였다. 이러한 휴정의 시세계는 '근세 선가문학을 완성하고 그 후의 선가문학에 이어지는 교량역할을 담당'<sup>25)</sup> 하고 있으며, '선시문학사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학사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도 될 만큼'<sup>26)</sup> 풍부하게 다양성과 문학성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 승려들의 순수 시문학이 본격적으로 작시되는데 휴정의 시중유화의 산거시는 그 마중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3) 청하는 자신의 회포를 읊은 시 〈咏懷〉, 休靜 摄『淸虛堂集』(H7, 688a)에서 "병은 육단심에 기인하나니 어찌 수고로이 많은 글자 모짓인가 오언절구 시로 평생의 뜻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을(病在肉團心 何勞多集字 五言絕句詩 可寫平生志)"이라고 하여 오언절구의 시 하나로 모든 평생의 뜻을 토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실제로 오언절구五言絕句를 가장 많이 작시하였다. 그의 문집에 수록된 600여 수의 시 가운데 오언절구는 317편이나 된다.

24) 이종찬(1993)은 작가별 선시를 고찰하면서 그 주제를 선가禪家의 격식이 드러나지 않는 승속僧俗을 초월한 작시태도를 지녔던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 교회적 정서가 희박하게 보이는 순수기행시를 다작한 함홍치능(涵弘致能 1805~1878), 동사열전을 짓는 등 불가의 연원을 세우기에 심혈을 기울인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의 담담한 서경시, 기이한 시문을 구가하였던 경허성우(鏡虛惺牛 1849~1912) 등으로 선사들의 작품경향을 특징지었다. 또한 권동순,(2010) 213에서 18세기 선시의 특징을 '이 시기 순수 시문의 선시를 구가하였던 점도 한 성격이다. 자연을 읊은 시에서는 언어의 조탁이나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천기본적天機本的 성향이라 불릴 수 있는 시들이 창작되었으며 순수기행시가 다작되기도 하였다.'라고 도출하기도 하였다.

25) 서규태(1994), 13

26) 백옥수(2018), 178

즉사이진卽事而眞  
그리고 기차 소풍

서목 / 사교과



쌀 한 돌 한 돌이 모여 마지를 올리게 되니, 출가한 이들 몸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한 방울 한 방울 물 모여 청수 올리게 되니, 학인들 지혜의 샘 흐르게 해 주시며  
켜켜이 물결지는 느티나무 금당金堂 되니, 학승들 여법하게 불법을 배우누나.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그윽한 향기 울려 주니, 학인들 각처에서 경전 수지독송하고  
나무 한 주 한 주 모여 웅장한 호거산 되니, 운무 속 운문도량 무릉도원 부럽지 않으며  
한 출가인 한 출가인이 모여 배워 졸업하니, 승가 이루고 비구니 승단 되어 전법하여지네.

하나에 모다 있고 모다에 일심一心 있으니, 원대한 뜻 세우고 가없는 원을 밟하고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教海 온 법계에 드날리는 디딤돌이 되고쳐  
그 씨앗 이곳 운문사에서 생겨나니 거룩한 화장장엄 세계에 들어온 공덕이로다.

한 알의 은행 열매가 수백 년 동안 매월 수십만 개  
황금빛 열매와 단풍 보내 주듯  
불법의 힘찬 한 씨앗이 되도록 다듬어 가누나.  
강원 4년 다닐 수 있는 이 도량에 몸담으니  
천룡팔부 신장님들 지켜 주시고 세워 주시네.  
수많은 단월들과 제불보살님들께  
싱그러운 봄 햇살을 바라보며 새삼 되새기고 감사의 큰절 올리도다.

턱난한 큰스님 한국에 방문하셔서 남겨 주신 귀한 활구, 이렇게 말씀하셨네!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면 짐은 기차가 실어다 줍니다.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편안히, 가볍게 실려 가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역시 불법은 위대하누나!

지난 생 또 이번 생 남섬부주행 기차  
운문사 칸에 타고 불법 배우러 생사 소풍 나왔구나!  
봄철 배우고 있는 원각경에  
모든 것이 환임을 알면 즉시 가벼워진다 하시었네.

너무나 실제 같은 극명한 이 세상!  
문사수聞思修하고 문사수聞思修하여 탐, 진, 치 삼독심에서 빠르고 가벼이 빠져나와  
한 발짝 한 발짝 밟아 올라  
일심一心을 경험하고 진실에 가 닿기를 발원하누나! ☩

항상 진실을 말하라  
쓰로 늘 일이 거듭 뉘를 다 말을 하고  
아는 일들어 오면 솔직이 말을 하여  
이 간질하지 말고 의리를 잊지 마세  
시비를 가리 늘 건증생의 악습인 것

## 법화칠유法華七喻 ①

경문 / 사교과

### 목 차

1. 이런저런 이야기
2. 법화칠유
3. 마무리하는 말



### 1. 이런저런 이야기

#### ■ 사함파티의 권청勸請과 일대시교一代時教

고타마 싯다르타는 인간의 근본문제인 생노병사를 떠나 해탈을 위하여 왕궁을 나와 수행 끝에 보드가야(Bodhgaya)의 네란자라(Nerañjara, 尼連禪河) 강 속 보리수 아래에서 칠일째 되던 날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경지의

깨달음을 중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법하기를 우려했지만 범천왕 梵天王 사합파티(Sahampati)가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세 번 간청한다. 부처님께서는 불안佛眼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여러 선근을 가진 중생들이 있음을 보셨다. 비유하자면 연꽃들인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과 같아서, 어떤 연꽃은 물에 잠긴 채, 어떤 연꽃은 물의 표면에, 어떤 연꽃은 물위로 솟아나와 물에 젖지 않은 채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여러 중생이 있었다. 번뇌가 적은 중생, 번뇌가 많은 중생, 다음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모른 채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중생이 많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법의 진리를 펴신다.

부처님의 일대시교는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룸으로부터 사라쌍수에서 입멸入滅하실 때까지 일생一生 동안 설하신 교법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교판가인 천태지의天台智顥의 오시교판五時敎判으로 보면 '화엄경 3·7일[最初華嚴 三七日], 아함경 12년[阿含十二], 방동경 8년[方等八], 반야경 21년[二十一載 談般若], 법화경 8년[終談法華 又八年]'으로 나눈다.

#### ■ 묘법일승妙法一乘과 제법실상諸法實相

『법화경法華經』에서는 일승一乘의 가르침을 찬탄한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였으나,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삼승三乘의 가르침을 설하여 이들의 근기를 성숙시킨 다음에 삼승을 회통하여 일승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 일승의 가르침을 '묘법일승妙法一乘'이라고 한다. '비교할 수 없이 불가사의한 미묘한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이다.

『법화경』 권1 「방편품方便品」에서 "부처님이 성취한 가장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야 제법의 실상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제법실상諸法實相은 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 드러낸다.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제법실상은 대승불교의 제일의 제第一義諦에 해당한다. 선종禪宗에서는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깨달은 본래면목本來面目이 그것이라고 한다. 「지도론智度論」에서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이라고 하고 삼론종三論宗에서는 궁정과 부정을 초월한 절대부정의 불가사의한 경지라고 한다.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제법실상을 삼중三重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일중一重에서는 인연법으로 발생한 일체현상인 제법諸法은 실체實體가 없으므로 본질本質이 공空하다고 보았다. 이중二重에서는 공空과 유有의 모든 것을 제법諸法으로 보고, 공과 유를 초월한 절대궁정의 입장에서 중도中道의 이치를 세워 제법실상을 삼았다. 삼중三重에서는 현상세계의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즉공即空, 즉가即假, 즉중即中으로 실상實相의 이치에 계합하므로 제법즉실諸法即實로써 입지立志를 세웠다. 이는 대승원교大乘圓教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 ■ 처련상정處染常淨과 방화즉과方華即果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기원 전후의 시기에 일어나서 불교가 쇠퇴한 1,200년까지 발전해 왔다. 이 시기를 연대적으로 초기(기원 전후~350년경), 중기(350년~650년 혹은 700년), 후기(700년~1200년)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법화경은 반야경般若經, 유마경維摩經, 화엄경華嚴經, 정토계淨土系 경전 등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경전의 산스크리트어로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dharma-Pundarika-sutra)’라고 한

다. ‘삿다르마’는 바른법[正法; 진리], ‘푼다리카’는 하얀 연꽃, ‘수트라’는 경전이라는 의미로서 법화경은 ‘하얀 연꽃과 같이 물들지 않는 청정한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과 보살의 모습을 진흙탕 물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난 연꽃’에 비유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연꽃을 흔히 ‘처련상정處染常淨’이라 표현한다. ‘더러운 데 있어도 항상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 비유는 중생이 아무리 번뇌 속에서 살아도 불성佛性 그 자체는 오염되는 일이 없어서 탐·진·치·삼독에 물든 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불성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연꽃의 씨앗은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보존되다가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썩이 트기 때문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상징이다. 뿌리는 진흙 속에 서려두고 꽃과 열매를 동시에 피워 내기 때문에 법화경 실상서 實相序에서는 ‘방화즉과方華即果’라고 표현하였다. 즉, 중생 속에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함장하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법화경法華經』은 중국에 전해진 뒤 여섯 차례 번역되었지만 현재 전해지는 본은 중국의 서진西晉 경제景帝의 태강太康 7년(286)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 요진姚秦 문환제文桓帝의 홍시弘始 8년(406)에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수隋 나라 문제文帝 원년(元年, 601)에 굴다와 금다가 공역共譯한 『첨品德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sup>1)</sup> 7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이 한문권의 불교국에서는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 경전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여 천태종이 성립되어 불교 역사상 찬란

1) 『묘법연화경』이 원래 28품이었지만 궁인宮人의 요청으로 「제비달다품」을 빼고 유동되었다. 601년 사니굴다 등에 의해 이 부분이 보충 번역되어 「첨品德法연화경」이 성립되었다.

한 빛을 비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수지독송受持讀誦하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 ■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의 개권현실開權顯實

법화경은 2처處 3회습의 설법으로 이루어졌다. 서품부터 제10품까지는 영축산靈鷲山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이루어졌고, 11품부터 22품까지 영축산위 허공회상에서 설법하시고, 23품부터 28품까지 다시 내려와서 영산회상에서 이루어졌다. 천태지의天台智顥<sup>2)</sup>는 법화경 7권을 제1~14품과 15~28품, 두 부분으로 분류하였는데, 전반부인 제1~14품은 「방편품」을 중심으로 일승의 진리를 밝히고, 후반부인 15~28품은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영원한 부처님, 곧 현실세계에 태어나 성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먼 옛날 이미 성불[久遠實成]하였고, 본래 영원한 부처[久遠本佛]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을 따라 법화경의 사상을 살펴보면 「방편품」에서 성문, 연각, 보살 등의 삼승을 위하여 설했던 것은 일승으로 인도회삼귀일: 會三歸一하기 위한 방편이고, 일승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셨던 궁극적 진리라고 말씀하신다.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개권현실開權顯實이라고 한다. 다른 대승경전에서의 일승은 성문승, 독각승과 구별되는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보살승을 가리킨다면, 「법화경」에서의 일승은 유일하다는 뜻은 같지만, 종래의 모든 삼승을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일승, 곧 유일한 성불의 법(佛乘):

불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이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는 의미이다.

## 2. 법화칠유法華七喻

■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四聖諦,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수행법은 방편으로, 삼승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 일불승으로 이끌기 위하여 법화경에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비유법을 법화칠유法華七喻라고도 하고, 착정유鑿井喻<sup>3)</sup>와 부소유父小喻<sup>4)</sup> 두 품을 더하여 법화구유法華九喻라고도 한다.

법화구유法華九喻		
1	화택의 비유	제3 비유품譬喻品
2	장자궁자의 비유	제4 신해품信解品
3	운우의 비유	제5 약초유품藥草喻品
4	화성의 비유	제7 화성유품化城喻品
5	의주의 비유	제8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6	계주의 비유	제14 안락행품安樂行品
7	의사의 비유	제16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8	착정유鑿井喻	제10 법사품法師品
9	부소유父小喻	제15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다음은 일곱 가지 비유 중 그 내용과 부처님께

2) 천태대사 지의(智顥 : 538~597)는 수나라(581~618) 시대의 승려로, 천태종의 개조開祖이다. 문하에는 장안章安·지월智越 등의 뛰어난 인재가 나왔다. 주요 저서에는 「법화현의法華玄義」·「법화문구法華文句」·「마하지관摩訶止觀」의 천태3대부天台三大部를 비롯하여 34부가 현존한다.

3) 제10 법사품法師品에 착정유鑿井喻가 있다. 이 말은 우물을 판다는 뜻이다. 우물을 팔 때 처음에는 마른 흙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파 들어가면 차츰차츰 젖은 흙이 나오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마침내 물이 나오게 된다. 우물을 파들어갈 때 이렇게 흙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공부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4)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 부소유父少喻가 있다.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를 누가 믿겠는가? 이런 말로 교훈을 일깨워 준다.

서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 1) 화택의 비유 「제3 비유품」 (●경문/ ■비유/ ◆요점)

● 어느 마을에 부유한 장자가 살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나 집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다. 장자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이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지금 빨리 뛰어 나오지 아니하면 불에 타서 죽는다고 알려 주어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장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양이 끄는 수레[羊車],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 소가 끄는 수레[牛車]를 준다고 하여 아이들은 불타는 집에서 달려 나왔다. 하지만 장자는 기뻐하며 크고 잘 생긴 흰 소가 끄는 보석으로 장식된 훌륭한 수레[大白牛車]를 아이들에게 주었다.

■ 장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를 준다고 약속하였지만 최고의 수레인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 줘은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자비의 방편으로 보고, 장자의 집은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의 화택이며, 현실세계인 바로 이곳이 화택이며, 중생들의 생로병사生老病死, 번뇌, 욕망, 탐진치貪嗔痴등이 모두 화택인 것이다. 화택에서 놀이에만 빠져 있던 아이들은 중생을 비유한다.

◆ 부처님의 높고 깊은 지혜를 중생들이 알지 못하므로 삼승三乘인 세 가지 가르침을 설하여 삼계三界的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한 연후에 일불승一佛乘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삼승을 일불승으로 끌고 가는 최고의 맷목이 바로 법화경이다.

### 2) 장자궁자의 비유 「제4 신해품」

● 한 아들이 어릴 적 집을 떠나 50년 동안 궁핍한 생활을 하며 떠돌다가 어느 마을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문 앞에 이르렀다. 아버지는 아들임을 즉시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아들은 죄도 없는데 불잡혀 죽을 것으로 생각해 놀라서 기절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허름한 사람을 보내 품삯을 배로 준다고 달래서 뿡(糞)거름 치는 일을 시킨다. 아버지는 낡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진흙과 먼지를 몸에 바르고 아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일하면서 빙궁한 아들의 경계심을 풀어준다. 아버지는 이름도 지어 주고 편하게 살도록 도와 주었으나, 아들은 스스로를 천한 사람이라고 여겨, 20년 동안 여전히 거름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점차 마음이 열리고 커진 아들은 창고와 모든 재산을 도맡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아들은 생각하기를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만 이제 보배창고가 저절로 들어왔다고 기뻐한다. ☺

상 징	비 유	
부처님	장자	
중생	아이들	
삼계三界	불타는 집	
성문승 聖門乘	양거羊車 양 수레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四 聖帝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방법
연각승 緣覺乘	녹거鹿車 사슴 수레	십이인연의 법문을 듣고 정진하여 출로 진리를 깨닫는 수행방법, 벽지불辟支佛 또는 독각獨覺
보살승 菩薩	우거牛車 소 수레	무상보리無上菩提를 구해 일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육바라밀행을 닦아 미래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수행방법
일불승 一佛乘	대백우거 大白牛車 흰 소가 끄는 수레	선정禪定과 해탈解脫의 경지로 여래如來와 같은 열반涅槃을 얻는 것

〈다음 호에 계속〉



## 한 생각을 잘 일으켜야…

– 법림사 주지 무진 스님

현밀 / 대교과



사리암에서 한 달간의 겨울방학 소임을 마치고 운문사 26회 선베스님이신 광주 법림사 주지 무진 스님을 뵈러 갔다. 광주로 가는 동안 날씨는 화창하고 구름도 없고 하늘은 푸른 봄 날이었다. 광주시내에서 법림사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 가는 곳마다 밭이며 시골 풍경이 친근했다. 언덕 위로 올라갈 때 산내음이 물씬 풍겼고, 정상에는 법당 풍경소리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법림사에 도착하는 순간 앞에 펼쳐 진 산등성이들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는 것 같았다. 단청이 없는 단백한 대웅전의 모습은 주위 산들과 참 잘 어울렸다. 절의 모습을 감상하며 스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솟구치는 그때, 마침 무진 스님께서 “반가워요” 하시며 밝은 목소리로 저희를 반겨 주셨다.

다실로 안내받아 요사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 한편에는 빼곡한 책들이 있었고, 이 책장들을 지나 다실에 들어가는 순간 전면유리창으로 앞산 풍경이 그대로 보였다.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스님께서는 신도분이 직접 만든 녹차라며 차를 내려 주셨다. 담담한 차 맛에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출가 인연을 말씀해 주셨다.

어린 시절 타 지역에서 근무하신 부모님을 떠나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중2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눈에는 할아버지가 그대로였어요. 단지 숨만 안 쉬고 누워 만 계신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서 6개월간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

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할아버지는 교회에 한 번도 와 보신 적이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에 그만……

그때 불현듯 중학교 봄가을 소풍으로 뒷산 절에 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덕산사에 가서 스님을 만나 뵈었어요.

스님께도 목사님께 했던 같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스님께서는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았다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와는 반대가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출가를 하려 했는데 스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가는 못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지요.

그 후로 집에 있던 불교서적이 눈에 보였어요.

달마대사 「혈액론」, 「관심론」이었어요.

첫구절에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포섭한다.’ 지금도 이 문구를 화두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출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찾아뵈었던 덕산사 스님들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절을 찾아 그때 뵈었던 사형님을 만나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스님의 말씀 중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던진 질문(저 사람이 누구인가?)을 들으니 문득 나의 출가 동기가 생각이 났다. 성철 큰스님의 〈영원한 자유〉라는 책에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이 말에 ‘내체 자기를 바르게 보고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과 나와 모든 이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발심을 했었다. 그래서 스님께 발심을 하시고 세우신 원력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다.

20대에는 강원을 다니면서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30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자 그리고, 선지식들의 수행담을 나도 한번 맛보고자 선방으로 향했지요.

첫 철은 해인사 약수암에 방부를 들였고, 성철 큰스님이 계신 총림이기도 했고요.

척추결핵으로 오랜 시간 앓아 있기 힘들었는데, 2시간 앓아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참선을 하면서도 경전을 들 봤었어요.

40대에는 지금의 법립사를 지은 후 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원력으로 광주시 소태동에 속가 인연으로 조그마한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광주불교교육원(22년 현재 23회 졸업생 배출)에서 학장 소임을 보면서, 제가 불자님들과 호남불교에 불교를 꽂고 싶었어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자를 하면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곧바로 동국대 명상상담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어르신을 위한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감

을 가진 파킨슨어르신이 점차로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치의가 의사소견서로 증명해 주셔서, 석사논문을 수월하게 통과했어요.

50대에는 전남대 교수님들과의 친분으로 박사과정을 하면서 전남대 산업공학과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통해 젊은 학생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이렇게 많이 살 줄 몰라, 출가시절에 60세까지만 베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60대, 지금은 덤으로 사는 생이기에 아무 계획 없이 살아요. 그냥 봇다의 삶으로 사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놓아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다면 2500평 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야채와 3분의 1은 꽃밭을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스님께서 20대부터 60세까지 출가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신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스님에 대해 사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하는 <대해노인복지센터>와, 매일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드시는 무료급식 <대해행복밥상>과, 1년에 한번 경노잔치인 <만발공양>과, 자비연탄 나눔 행사,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키워서 내 몸을 만들어 가는 <사찰음식강의>와, <자비명상>을 통해서 매년 2학기 과정으로 자비명상지도사 8기생을 배출 해서(코로나로 잠시중단) 방과 후 학생들과 대학원에서 강의중이다.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중고교생들과 함께 봇다의 가르침을 재미나게 실천하고 한국불교가 곧 화엄불교이기에 <화엄경법회>를 통해 보현행을 실천하는 불자를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았다.

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신 일 중에서 대표적인 <대해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노인 복지를 하시게 된 이유와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90년 초반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 년 동안에 조금씩 모아 매년 3명씩 장학금을 주었던 게 단초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장학생 아이 집에 갔었는데, 어려운 형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

한 생각이 났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밀반찬 배달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부처님께 올린 쌀을 한 자루 모아지면 김치 한 통을 담아서 한 집, 두 집 배달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50~70여 분의 어르신들이 늘어나자 자원봉사자 수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또 한 생각을 내었어요. ‘시내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력으로 지금의 센터가 이루어졌어요.

제 계획은 지하1층은 홍겨운 노래방, 1층은 무료급식소, <대해행복밥상>이라고 급식을 하면 300명씩이나 많이 왔어요. 2층은 물리치료실, 3층은 개개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실, 4층은 법당이에요. 4층에 법당이 있는 이유는 1층에서 밥을 먹고, 2층에 물리치료 받고, 3층에서 흥겹게 즐기다가 집으로 가고, 어느 날 4층 부처님이 궁금해서 올라와서 부처님도 뵙고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불자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나서 원력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지금 현재 <대해복지센터> 건물은 너무 오래되고 허름해요. 나에겐 경제력이 없었고 한 생각에 생긴 건물이기도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스님의 원력으로 오랫동안 복지와 포교 활동을 하시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서 열등의식이 강했어요. 학교 다닐 때 번호가 1번 아니면 2번이라서 건강도 약했고, 키도 작고 엄마도 안 계셔서 할아버지하고 살다보니, 그래서 엄마 없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당당해졌어요. 이 사바세계에 왔을 때는 제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하자!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인생은 어차피 배우는 거예요. 세 번만 실패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거예요!  
즐겁고 재밌게 했어요. 덤으로 산 인생, 덤으로 할 일이 있으니 살아지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 문득 백조가 우아하고 아름답게 물 위를 다니지만, 사실은 물 아래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발을 움직이듯이, 스님께서 원력을 다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부처님의 법을 따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스님께서는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것이며, 저희 후배 스님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의 한 생각을 어떻게 세우는 것에 따라 원력이 되거나 업력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력을 세우게 되면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화엄경을 곁에 두면서 화장장엄 세계를 바라며 매일 80권 화엄경을 불자님들이 좀더 쉽게 듣송하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끔 회갑인 3년 전 법공양관으로 인쇄한 “한 권으로 읽는 화엄경”을 광주불교교육원 강의 책

자로 사용하려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바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한국불교, 화엄불교를 꽂피우기 위해서 밭에서는 꽃을 가꾸고 내 마음의 경전인 화엄경은 깊이 수지·독송·서사하는 공덕의 탑을 쌓아가 보렵니다.

후배 스님들에게는 공부하는데 있어서 강원에서는 온전히 부처님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하면서 우리네 삶과 봇다의 철학이 온전히 하나 됨을 체득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나타내 보이신 수행단계로서 신해행증信解行證.

信 믿는다는 것, 어떻게 믿을 것인가? 확신이 중요합니다.

解 이왕 믿는다면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行 바르게 이해했다면 바로 실천으로 옮기겠지요.

證 부단히 실천하다 보면 깨달음을 증득하는 거지요.

선재동자의 구법행으로 보현보살의 대원행, 그리고 문수보살의 대지혜행을 내 삶 속에서 꽂피우면서 재미나게 강원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다시 들어도 좋을 만큼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다. 스님과 함께 다실 앞 무등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밭을 구경시켜 주셨다. 밭은 정말 넓었다. 이 밭에서 나는 작물들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공양을 하셨을 스님을 보니, 그 뒷모습이 더 위대해 보였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를 한 개, 두 개 뽑으시고 흙을 털면서 “유기농이니 가서 맛나게 먹어요”라고 주시는 모습에 소탈하지만 가장 중생 가까이에서 포교하시는 삶을 엿 볼 수 있었다.

다음에 올 때는 이곳에 많은 이쁜 꽃들로 장엄 될 모습을 상상하며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다.



언제나 궁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셨기 때문이고, 한 생각 내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모든 이들에게 원력 보살이 된 가르침은 ‘역시 어른스님들은 가까이서 친견해야 돼’로 느껴졌다.

현재 운문사의 교화부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포교에 대한 포부와 나의 원력에 대해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늘 경전을 곁에 두시며 공부하시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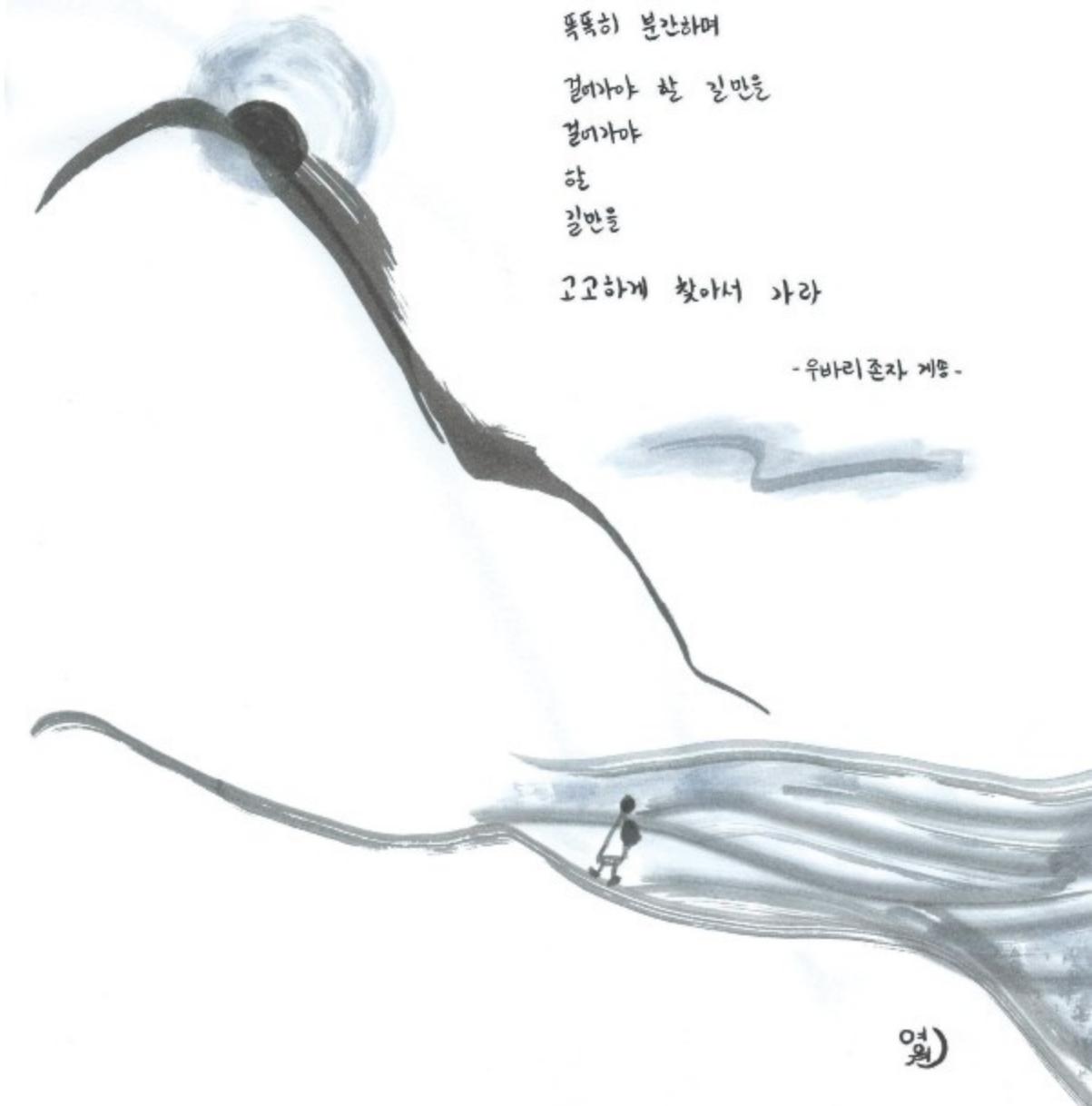
오늘은 큰 가르침을 얻은 행복한 날이었다. ♡

신심견고 영불퇴전  
信心堅固 永不退轉

영원 / 사교과

신심으로써 흑락을 버리고  
신심으로써 흑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똑똑히分辨하며  
걸어야 할 길만을  
걸어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우바리존자 계동-



영원

## 티베트 전통 무문관 흑방 폐관수행

청전

오늘 이 글을 쓰는데 묘하게도 나는 흑한의 라닥에 들어와 있다.

그것도 흑방 수행처인 헤미스 곰빠의 괴창(독수리등지 암자)을 방문했고, 짱데 곰빠에 속하는 캐광 참캉(무문관)을 참배했다. 해발 4,000m가 넘는 높은 곳의 암자로 500년의 수행 전통처이다. 이 암자의 흑방은 누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죽음마저 받아들이는 초인적인 굳은 신념이 먼저 요구된다. 서약서를 남겨야 한다. 정진하다 죽어도 좋다는 서약이다. 물론 자격을 갖춰야 한다. 티베트 밀교의 맥脈 · 기氣 · 정精 기본 자량을 갖춘 수행인이 스승의 허락을 받아 한 자리, 한 곳에서 천일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수행이기 때문이다. ‘흑방’ 이란 햇빛이 차단된 컴컴한 방 –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이 단절된 곳이다. 흑방 안쪽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처리된 자그마한 구멍이 한 개 있을 뿐이다. 생리작용을 처리하는 대소변의 통로로서 교묘히 물줄기가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다.

음식은 보름에 한 번 정도 한밤에 이중 틀로 된 자그만 통로(공간)에 조용히 들여놓을 뿐이다. 수행인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볶아 만든 보리가루인 짬짜와 몇 가지 견과류, 버터, 치즈 가루 등으로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만 전달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름 전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다면 문제(?)가 생긴 것 이든지 아니면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후에도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입방 전 약속된 신호로 문제가 생긴 건지 깊은 선정 인지를 밝힌다.

어떻게? 흑방 입방 전 정해 놓은 약속된 신호가 있는바, 이 신호를 보냈을 때 약속된 응답 신호로 응답한다면 죽지 않고 선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끝내 없다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흑방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수행 중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이다.

필자는 1991년 히말라야의 어느 흑방 수행처를 찾아간 적이 있다. 한 스님이 수행 중 임종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갔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지만 그간의 경위와 죽은 스님의 인적사항 등을 무례하게도 꼬치꼬치 물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곳 최고 수행 스님과도 문답을 나눌 수 있었다. 죽음을 맞은 스님은 나이가 사십대였고 고향은 티베트 캄지역이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내가 훗날 이곳에 오면 천일 수행을 허락할 수 있는지를 물으니 - 어렵단다. 첫째 그 건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맥·기·정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수행지도자 스님의 점검확인 동과의식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안타깝지만 당시 내 수행력으로는 예선탈락이다.



티베트 전통 맥·기·정 수행은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비슷한 수행이 중국 전통 도가 수행으로 이어오는 것으로 안다. 그런 행자들을 더러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고귀한 수행법이 상업적으로 타락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도시 곳곳에 단학선원이니 단 수련이니 하는 빨간 간판을 많이 봤을 것이다. 티베트 밀교 수행의 기본 수행도 다름 아닌 단 수련이다.

특히 “나로 최득”은 까규파 전통 수행이 된 성자 ‘나로빠’ 어르신의 여섯 가지 가르침이 있다. 첫번째 수행덕목이 단 수행 - ‘뜸모 수행’으로서 배꼽을 중심으로 불(열 : 膻火)을 일으키는 기본 수행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글이나 지식으로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없는 묘한 신체 생리적 현상이다. 나로빠 성자의 여섯 가지 수행법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성자 스님들의 신통 이변을 그대로 째뚫어 볼 수 있었다.

신라 때의 이차돈 성자 순교의 하얀 피라든지 마지막 서산·사명·진목 대사의 전해 내려오는 신통방통의 전설따라 삼천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저 멀리 선가의 초조初祖 달마대사의 허무 맹랑한 전설 같은 이적들이 모두 수행 중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라는 점 - 다만 그 수행법들이 이제는 단절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예를 들면 더러 어느 큰스님이 좌탈입망했다는 얘기며, 억지로 비틀어 가부좌 자세의 촌스러운 사진을 보면, 그 수행자 수행력의 진위 여부가 그대로 보여진다.

어디 좌탈입망이 그리 쉬운 것인가!

10여 년 전이다. 존자님(달라이라마)의 법문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재가자가 바로 이 흑방수행에 대해 질문했다. 시간상 긴 답변은 아니었지만 티베트불교 전통 수행에 대한 찬탄과 함께 계승하는 것은 인류 정신사에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어 필자가 바로 질문을 던졌다.

“이 흑방 수행에서 꼭 천일을 고집해야 됩니까? 육백 칠백 팔백일로는 마칠 수 없나요?”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천일이어야 한다. 우리 몸의 신비한 구조는 꼼짝 않고 한자리에서 천 일 동안 집중했을 때만 바뀐다. 그래야만 몸 안의 미세 기관들이 범부 자리에서 성자의 기관으로 변한다.”

그때 필자는 크게 깨달아, 큰 환희심으로 흑방 수행을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어른이신 효봉 스님의 금강산 법기암에서의 일일일식의 토굴 폐관수행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어르신의 삼년 토굴수행의 피나는 수행 이야기는 제자이신 법정 스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매일 한 번씩 효봉 어른스님께 최고의 정성으로 음식 공양을 올리시던 비구니스님도 얼마 전 입적하신 소식을 들었다.

요즘 한국 승가에서도 무문관, 삼년결사, 용맹정진 등등 큰 간판을 걸고 수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종종 접한다. 가히 수희 찬탄할 정진력이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온갖 풍요와 편리를 포기하며 생사를 뛰어넘어 윤회의 결박을 끊고자 하는 스님들의 결의에 경의를 표한다. 문제는 떠들썩한 호화로운 시작(결제結制)의 행사는 있었는데 마지막 회향의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흐지부지 수행 약속이 실종되곤 한다. 입재의식이란 제불보살과의 약속인데 부끄럽게도 함부로 그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다니!!!



더러 어느 절에서는 만일기도 입재入齋라는 커다란 행사를 한다. 물론 만일기도를 마친 성스럽고 수희 찬탄할 회향식이 이어진 곳을 한 번도 못 봤다.

만일을 채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 30년이 넘는 세월인데!

오륙년 전에 한 노스님의 만일 회향 기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여, 필자가 한국 들어왔을 때 백양사의 어느 말사를 찾아 그 노스님을 감히 친견하고자 했으나 못 뵙고 말았다. 한자리에서 30년 넘게 만일기도를 성취하신 뒤, 당신 소원이 바다를 보고 싶다하여 그날 아침 떠나셨다고 한다. 그나마 주지스님의 배려로 기도하시는 스님의 동영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진 몇장을 보니 청정비구의 자태가 그대로 진심에 와 닿았다.

필자는 노스님께 찬탄의 예를 올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인도로 돌아왔지만, 훗날을 기약해 본다.

초인의 의지와 금강의 신심이 없이 어찌 천일기도, 만일기도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일제시대 금강산 어느 절에서 신도, 스님 여섯 분이 함께 만일기도를 성취해 마치며 그 자리 그대로에서 육신등공의 전설이 내려오는바 필자는 그 이적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수행 일화는 불교 전통국가 곳곳에서 구전이나 역사적 문서의 형태로 전해져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필자가 오래 머물던 다람살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또'라는 큰 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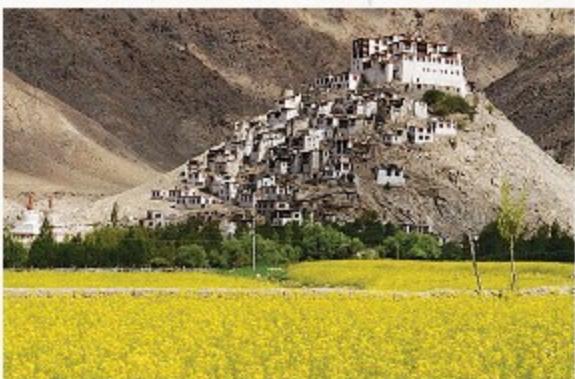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 고매하신 한 스님을 찾아 얘기 나누던 중 처음 뵈는 스님을 인사시켜 준다.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거동이 잔잔하고 편안한 모습의 오십대 스님이시다.

아! 바로 이 분이 3년 흑방수행을 원만히 마친 스님이다. – 전율이 일었다.

그것도 세 차례를, 천일씩 세 번의 폐관수행을 성취한 것이다.

당시 그 스님과 자리하며 큰 존경심이 우리남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해 무한한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같은 사람으로서, 승가의 한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 기간은 고사하고 하루하루의 수

행 과정조차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 말이다. 사실 흑방 안에서는 하루하루가 없다 – 시간이 단절된 그저 고요한 침묵과 어둠의 공간일 뿐이다. 밤낮이 없으니까!



2003년 헤미스 곰빠 소속 괴창 곰빠에서 천일 무문관 수행을 끝내고 나온 열 명 안팎의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큰 복이다. 흑방수행이 끝날

무렵이면 안으로 신호가 간다. 삼년이 지났으니 흑방을 해체하겠다는 신호다. 그때 안에 계신 스님들은 이미 준비된 빨간 천으로 눈을 가리고 기다린다. 만약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장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근 열흘 동안은 밤이 되면 눈가리개를 조금씩 열어 가며 빛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필자는 그 당시 흑방수행 마치고 눈 덮개를 다 열어 마친 스님들을 바로 만났던 것인즉, 그 복이라니! 그것도 괴창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한 큰절 주지스님의 배려로 괴창 스님들이 다 내려온 것이다.

물론 준비한 승복과 신발(구두), 영양제, 약품, 보시 공양까지 내가 올릴 수 있는 모든 공양 물을 가까이 올릴 수 있었다. 그 스님들을 내 앞에 모시고… 천일 수행을 마친 여섯 분의 모습 자체에 난 기가 죽었지만, 당시 그 스님들의 눈빛과 조용한 거동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다. 그저 합장으로 감사와 찬탄의 예를 올리며 나를 뒤돌아볼 뿐이니, 과연 내 한평생 이런 수행 시간을 몸소 실천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강인한 수행 의지, 한자리에서 침묵 정진을 이어가는 혹독한 자기 체험이 없는 수행자라면 그 어떤 장광설이라도 그것은 언어유희일 뿐이다. 듣는 이에게 어떤 감응도 없다. 똑같은 부처님 제자로, 또 출가한 장부로 이런 폐관수행을 한 번은 이어 마치는 스님들이 계실 때 미래 불법의 불씨는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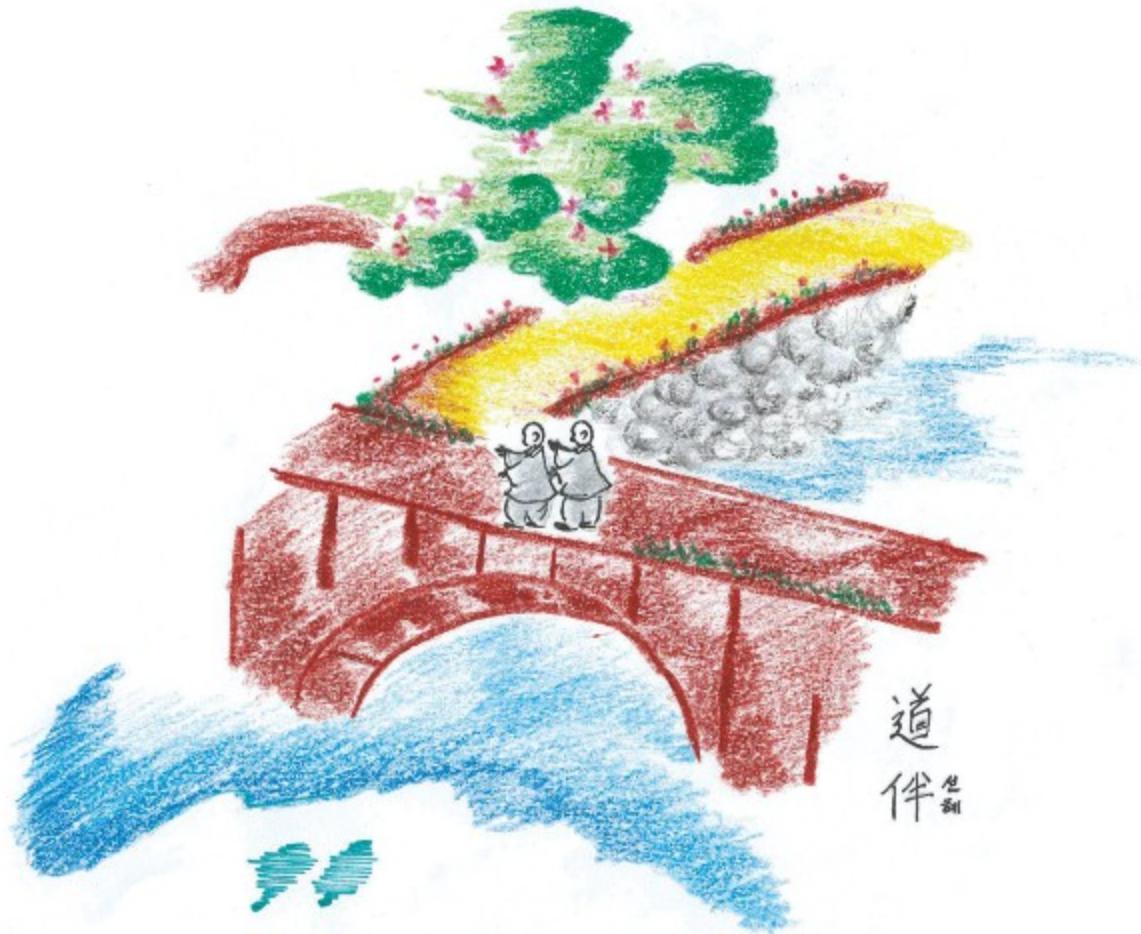
지켜보는 천상의 신인들이며 청정한 재가자들의 눈이 떠진다. ☺



청전清典 스님

구산 선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1977년 송광사로 입산 출가했다. 1979년 비구계를 받고 1986년까지 지리산 백장암, 망월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동화사, 법주사, 송광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87년 성지 순례에 나서 달라이 라마, 마더 테레사 등 많은 선지식을 탐방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달라이 라마가 계신 북인도 다람살라에 터를 잡았고, 이후 31년 동안 달라이 라마께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며 동시에 달라이 라마의 한국어 통역을 맡기도 했다. 2000년부터 히말라야 라닥 및 스파티 오지 곰빼(사원), 학교, 마을 등에 의약품을 나눠 주는 등 봉사활동을 계속해 온 공로로 2015년 만해대상(실천 분야)을 수상했다.

청전 스님은 풍카파의 「Gamrim Chom (보리도차제론)」을 티벳 원전에서 십여 년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출간했으며, 『성 천수천안 관정 의식집』, 『산띠대비의 입보리행론』, 『티벳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을 번역해 출간하였다. 그 외 저서로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난 20년』, 『나는 걷는다 봇다와 함께』,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안녕, 다람살라』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생각하라』의 김수를 맡았다.



道  
伴  
선제

## 도반

혜성 / 사집반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열 가지 중 한 가지

아홉이 하나보다 많은데  
나는 왜 그 하나 때문에 여기 있을까?

아…! 아홉보다 큰 하나인가보다.

좋아서 싫고, 싫어서 좋은…  
좋아도 싫어도 함께 길을 가는 우리. ☺

## 길을 갑니다

승연 / 사집과

도량의 꽃들은 피고 지고, 또다시 피어납니다.  
사집 첫 철, 벚꽃은 밤이면 더욱 화사함과 은은한 빛을  
선사합니다.

슬며시 걸음을 늦추며 자문합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제대로 길을 가고 있기는 한걸까?” 지름길이 있  
으리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대로 정진하는지, 자신있게  
선명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 그리고 치문 네 철을 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접했을 때 나를 돌이키는 키워드는 “뭣이  
중현디?”였습니다. 산문에 들어오면, 고요한 흐름 속에 그냥 나를 내어 맡기면 되려니 했던 것은 큰 판단  
착오였음을… 역류하는 에너지는 상상 밖으로 센 것이었습니다.

호된 역행보살님들은 담장 밖으로 마음을 몰아냈고 한편, 도량 곳곳에서 제 근기를 살피시며 외호해  
주는 신장님들은 용기와 격려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씨실과 날실들로 엮인 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을  
수록 역류하는 물살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음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자칫하면 표류할지도 몰라! 신장님과 역행보살은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하시니…’  
한편, 타인의 언행에 의존해서 울고 웃는 자신을 보는 쟁쟁함과도 마주 해야 했습니다.  
‘뭣이 중현디?, 부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관점을 바꾸자! 높이와 방향을 달리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띄우자.  
내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느끼는 그런 ‘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수행을 잘 하고 있는거?’

민첩함을 요구하는 규칙생활에 난항을 겪던 중, 새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단단해지기 위한 노력,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을 생겨나게 하려면 어찌할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무엇. 일단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자… 한 달도 못 되어 포기.  
하안거 결제와 더불어 금강경 주 5회 독송하기… 일주일 만에 중도 포기.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삼장원에 들러 서가에서 〈쌍육다니까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냥 읽자! 내용을 못 새기더라도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셈 치고. 그렇게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주로 이 용해서 겨울철에 읽기를 마쳤습니다.

매일 약간의 메모를 남겼지만 노트는 2/3 이상이 졸음의 흔적입니다.  
그래도 뿐듯해 하던 중, 수업 시간에 이런 글귀를 만났습니다.  
‘學語之輩는 設時似悟이나 對境還迷하나니 所謂言行이 相違者也니라’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을 할 땐 깨친 듯 하다가도 경계에 부딪히면 캄캄해지나니 말과 행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는 스스로 속는다. 곧 자만自慢을 일컬음이라,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깨쳤다고 착각하는 바로 나 같은 이를 경계하는 말이구나!’

아,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 하며 저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줍니다.

경황없는 중에도 휴일엔 가벼운 산행을 도반 서넛과 같이 나섭니다. 날씨 따라 피로도에 따라 목표지점을 정하지만 대체로 학소대를 꿈꾸다가 절반 못 간 아랫재 삼거리, 계곡 쪽이거나 아랫재의 평이한 오르막길입니다.

시작할 때 “아, 글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로 시작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그리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고맙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고 몸도 적절히 노곤해지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공간이 생겨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아침저녁으로 염송하는 반야심경의 첫 구절 -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느니라.

오늘 이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오온이 공함을 알아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어떠한 물질도 느낌도 인식도 심리현상도 알음알이도 이런 모든 것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 따라 형성된 것임을 알고 보면 즉시 번뇌들이 멀진한다. 취착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사량분별한다”

- 『쌍육다니까야』, 「수라다경」 中에서

그 말씀 새기며 들이키며 그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갑니다.  
부처님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이 길을 갑니다. ☺



## 봄꽃으로 피어나는 치문반 스님

사미니과



삼보에 귀의 하옵고 천년고찰 운문사에서 강원생활의 첫 시작! 봄을 기다리듯 2주간 입학이 늦어지면서 기다림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사스님과 사형스님들께 들은 강원을 직접 오게 되나니 참으로 꿈만 같았습니다. 전통강원생활은 어떠한지, 어떤 도반스님들을 만나게 될지, 운문사의 이목소, 사리암 등 궁금하였습니다.

운문사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짐을 옮기는 수레가 대기되어 있고, 안내해 주시는 상반스님들, 정갈한 도량, 어머니 품에 온 듯이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입학이 늦어져서 익혀야 하는 습의들이 많고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가장 거친 업인 신업을 닦는 게 수행이고 순간순간 깨어 대중과 화합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상반스님들의 보살핌과 습의를 할 때 안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을 일깨우는 종각에서 상반스님들의 사물시연은 멋지고 대단해보였습니다. 봄의 향연이 한창중인 운문사의 뜨락을 숨 보며 걷는 것은 소소한 행복입니다.

저녁예불 후 대중스님들과 안행하며 문수선원까지 걷는 수행은 부처님을 따라 걷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벚꽃과 진달래꽃으로 둘러 싸여진 길은 치문의 시작을 반겨 주는 것 같습니다.

“신심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한 젊은 출가出家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 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서 가라”

- 우바리 존자 계송

계초심학인문 첫 수업에 알려 주신 계송입니다. 운문사의 봄이 꽃으로 피어나듯 치문반들의 마음에도 부처님 신심의 꽃이 피어나기를 발원합니다. - 혜명

세상이 코로나로 강원입학마저 미루어지는 어수선함 속에서도 자연은 무심히 봄을 준비하여 목련 봉오리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던 봄 날, 운문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워 주위를 둘러볼 사이도 없는 와중에 정랑을 오갈 때 보이는 목련이 하루가 다르게 꽃을 피워가는 모습이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눈 끌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신발 벗는 것부터 이부자리에 드는 것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며 정신없이 보내는 중에도 세월은 흘러, 활짝 펴던 목련이 어느덧 갈변하여 무상함을 온 몸으로 드러내 보이며 지고 있습니다. 찰나이세刹那異世라지만 꽃이 한 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의 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 라지만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서툰 몸으로 익혀가느라 여전히 앓고 서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여러 어른 스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덕분이겠지요.

특히, 입승스님과 청풍료 큰 부전, 작은 부전 스님, 사집반 스님들과 그 외 여러 스님들께서 습의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해태심이 일어나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하시고 혹시라도 잘못 배워 나중에 경책 받을 일이 없게끔 바른 습관을 익히게 하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아둔하고 가진 재주가 없어 빨리 배우지도 능숙하게 익히지도 못하지만 알려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어느 대중 속에서 살더라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익히며 살겠습니다. - 선재 .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세요!

- 은사스님께 온 편지 -

구화



진성 스님 보세요.

운문사 가는 날 일주문 앞에 매화가 한창 향기를 뿐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릉도원의 도화가 향기를 흩뿌리네요.



출가 한 이유가 맑게 살고 싶어서라고 했지요.

출가한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였겠지만  
행자기간을 거치면서 삶의 최전선에 뛰어든 듯 했었죠.

이제부터 맑고 향기로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치문의 하루하루는 좀 길게 느껴지지만, 화엄의 나날은 번개가 번쩍 하는 것 같을 거예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이 스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편지 첫머리에 '진성 정례頂禮' 라고 했나요?

그래요. 항상 그 정례하는 마음, 모든 이들에게 九拜하는 마음으로 공경심을 내서  
몸과 마음을 늘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하죠?

잘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아야겠죠.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으니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편지에 '구경무아究竟無我'의 글귀를 새겨 강원생활에 임하겠다고 했지요?  
예전 날 대화 중에 금강경독송 천일기도를 하면서 <17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이란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지요.  
무아를 통달하면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이르지요.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을 물으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아상과 인상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또한 색성향미촉법과  
내외에 집착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항복받아야 안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면 일체법一切法 그대로가 진리이고  
제법諸法이 본래 스스로 여여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진여불성의 자리이고 구경청정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어른스님들과 강사스님들은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같이 입방한 스님들은 평생 도반이 될 거예요.  
『화엄경』에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라고  
"신심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의보주 같은 부처님의 금구성언을 보고 듣고 배워서 신심을 기르고  
마음그릇을 키워 보세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강원시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고 날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할 때 반야지혜가 열립니다.  
반야지혜가 열릴 때 삶이 맑아지고 향기로운 삶이 될 겁니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 사월 봄날에 구화九華 ☺





## 사식법四食法 - 내 안의 아귀我鬼

정연 上 / 대교과

“만일 누구나 존재에 대한 사랑을 끊고 존재를  
희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고 늙고 죽는 고통에 대해 조그마  
한 집착도 내지 않으리.”

-『정법념처경』 16권 中-

마음속 ‘나’에 대한 굽주림을 처음 자각하였  
던 것은 언제였을까.

불교에서는 중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아귀·축생·인간·아수  
라·천상으로 나뉘는 육도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고 태어난다고 한다. 육도 중 아귀도의 아귀餓鬼  
는 생전의 탐욕으로 인해 아귀도에 태어나 늘 굽주  
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육도운회를  
마음으로 보면 찰나생찰나멸하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의도, 생각, 감정을 갖느  
나에 따라 찰나마다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저녁,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지인이 별  
개의 상황을 자신과 연관 지어 고민하는 것을 들

으며 ‘왜 무관한 대상과 본인을 연결해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물음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인식이나 느낌, 판단 등의 바탕에  
는 ‘나’와 함께, 손바닥 뒤집듯 상황 따라 바뀌는  
‘어떠한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조종하  
려는 욕심이 있었다. 한번 인식하자 ‘나’에 맞추어  
진 프레임의 반복은 피로감과 함께 그런 의식의  
필터가 괴물로 느껴졌다. 마치 육도 중의 아귀餓  
鬼, 아니 ‘나’에 대한 배고픔으로 ‘괴로운 아귀我  
鬼’ 말이다.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의 근본에 의지함  
이며 탐욕은 갈애의 성품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러  
한 갈애는 중생의 목숨을 유지시키고 생을 일으키  
는 네 가지 음식을 발생시킨다.”

초기경전인 『쌍육따 니끼야』 『음식경』에는 갈  
애로부터 발생하여 우리 중생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윤회를 반복하려는) 중생들을 도  
와 주는 네 가지 음식, 소위 사식법四食法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사식법은 단식段食, 촉식觸食, 의사식意思食, 식식識食, 이 네 가지로 첫 번째 단식段食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육체를 유지시켜 목숨을 지속하는 양분이 된다. 두 번째 촉식觸食은 '감각접촉'으로 육근六根이 육경六境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육식六識으로 느낌을 일으키는 양분이 되며 세 번째 의사식意思食은 '마음의 의도'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반하여 업을 발생해 존재를 유지 및 생성시키려는 양분이 된다.

네 번째 식식識食은 알음알이 혹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앞의 세 가지 음식들을 통해 자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명색名色(이름과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단식은 몸의 양식, 나머지 세 개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특별이 이 네 가지 요소를 음식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중생들의 내적인 존재지속을 유지하는데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있음경』(S12:64)에서 "만일 네 가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즐김이 있고, 즐김으로 인해 갈애가 있으면 거기서 알음알이가 확립되고 증대되며, 알음알이가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정신물질이 출현하고, 정신물질이 출현하는 곳에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증장하는 곳에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는 '나'에 대한 허망한 집착으로 인해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한 계속된 탐욕-즉 아귀와 같은 마음의 지속-을 가짐으로써 육도육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아들의 고기 경』(S12:63)에서 다음과 같은 바른 관찰법을 가

르쳐주고 계신다.

첫 번째 단식에 대해서는 마치 사막을 건너던 부부가 양식이 떨어지자 외동아들을 잡아 기슴을 치며 울면서 그 고기를 먹으며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반조하면서 혐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촉식(감각접촉)에 대해서는 마치 소가 가죽이 통째로 벗겨져 있을 때 주변의 생물들에게 그 생살을 뜯어 먹힐 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 바르게 관찰하면 삼계의 감각접촉을 바라지 않게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의사식인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는 마치 숯불이 타고 있는 구덩이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곧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도의 뿌리인 갈애를 생각하고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한다.

네 번째 의사식인 알음알이는 마치 죄를 지어 삼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도둑의 고통과 같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보로 나타나는 과로움을 생각하며 알음알이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지옥 다음 가는 고통을 겪는 아귀도 감로수를 먹으면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한다. 부처님의 말우에는 감로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귀는 부처님을 만나면 감로수를 달라고 간청한다. 감로수는 곧 부처님 가르침의 상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내 안의 아귀鬼를 키워 윤회하고 있다. 사식四食에 대한 부처님의 감로수를 받아 마셔 오욕의 맛을 쫓는 것을 멈추고, 범희선열의 맛으로 다겁생동안 겪어온 마음속 굽주림이 채워지기를 발원해 본다. ☺

## 언제나 현재진행형

– 오백전 100일 기도

효민 / 대교과



운문사에는 일 년 중 유일하게 하는 오백전 100일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대중들은 가을철 개강을 하자마자 입재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저 소임자 스님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치문, 사집 때와는 다르게 사교반이 되어 대중 행사에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입재에 올릴 띡, 과일, 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함께 기도할 공간, 음향 등 어느 것 하나 대중의 손길이 안 거쳐 간 것이 없었습니다. 학인스님들부터 입재식에 참석해 주신 회주스님까지 운문사 대중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00일 기도 중에는 운문사 대중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불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백전에 들리시는 윤주스님께서 한 날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백전 부전스님은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해요?”

기도부전 소임을 지원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일어나자는 다짐은 했어도, 정작 기도 중엔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생각해 보지 않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주스님의 질문 덕분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진중하게 사유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만의 답을 내렸습니다. 오백전에 차곡차곡 싸인 축원문을 보며 많은 분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축원문에는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발전된 미래를 바라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부대중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비우고 비우는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니 오백전에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편하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고 오백전 안팎으로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갔습니다.

운문사에는 오백전에 모셔진 나한님들 한 분 한 분께 각각 마지막을 올리는 오백미 공양五百米 供養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오백미는 저녁기도 이후에 올리는데, 100일 기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사교반 스님들이 기도 중에 오백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기도에 방해가 될까 조심하는 도반스님들의 움직임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대성중’ 정근 중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대성중, 제대성중, 제대성중…’을 따라하며 정성스럽게 오백미를 올린 도반스님들의 모습은 기도 회향날까지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시기도에 참석했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초를 공양 올리고는 자녀분 사진이 담긴 기도문을 펼쳐 기도하셨습니다. 회향할 무렵 늘 사진으로만 보던 자녀분이 법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해보지 않았을 절이 힘들 법한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보살님을 따라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기도 후 이야기를 나눠보니 “내 기도를 엄마만 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직접 와서 회향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백전에서의 기도가 운문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퍼져 나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당에서 직접 차를 우려 공양 올리거나 손수 만든 꽃바구니로 전각을 장엄하는 등 기도하는 동안 불자님들과의 소통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될 오백전 100일 기도에는 어떤 소중한 인연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백미를 올려 주는 각 반 스님들, 그 쌀을 옮겨 주는 부목 처사님과 마지막을 지어 주는 공양주 보살님, 사시기도엔 축원문을 한 장도 빠짐없이 읽어 주는 사교반 스님들, 무엇보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의 관심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 매 순간 영향을 주고받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둘이 아님(不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은 오백전 100일기도 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구의 한 구성원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오백전 100일 기도처럼 가족, 친구, 동료, 자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성원보다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 주변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온기를 퍼트릴 수 있는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백나한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바라며 2022년 가을 오백전 100일 기도에도 사부대중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 운문, 운문인

벚꽃 따라~  
대중스님 따라~  
즐거운 벚꽃 안행.



사집반 스님 벚꽃나들이~  
치문반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멀찌 형님 되었네!



신중기도 회향 소금 묻기!  
임인년 을 한해 무장무애하게 해 주세요!!



엄마반 사교반 스님!  
공양 맛있게 해 줘서 고마워요~



연등 만들며  
내 마음의 둥불도 밝혀 보아요~

# 법의 향기 가득 운문에 편 봄

편집부



목련꽃보다 치문반 스님!

부처님오신날 맞아  
운문에 연등꽃이 피었습니다~  
법의 향기 가득합니다!!



장군평 쑥 캐어  
쑥털털이, 쑥개떡 해먹고  
쑥덕쑥덕 쌓이는  
도반과의 우정-



애기 사과꽃나무 아래~  
누가 꽃인지, 누가 스님인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운문사집 유치원~



## 소박한 기도

지명 / 사교과

출가 전 광주 무각사에서 3년간 새벽기도를 하며, 신행생활을 하면서 진발심을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3시가 되면 알람시계는 어김없이 울리고 30분만 더, 아니 10분,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 고민할 틈도 없이 이불에 돌돌 말려 있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밤사이 누군가 와서 풀 발라 놓은 듯 떨어지지 않는 눈꺼풀을 강제로 떼어내고 30분을 걸어서 매일 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던 도량석, 목탁소리, 대종소리, 스님들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던 웅장한 음성의 “지심귀명례”는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면 개인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직 ‘하심’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절기도에만 집중하던 약 7년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108배로 시작된 기도는 서서히 500배, 1000배, 3000배가 되었고 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 천 배 천일기도를 하며 번뇌, 망상, 분노, 우울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탐·진·치 삼독과 오만·의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괴로워하던 마음에서 알 수 없는 자애심, 연민심, 환희심이 유통치면 저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범당 바닥과 몸이 하나 되어 평평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일기도를 마치고 은사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출가의 참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 나도 출가자가 되었으니 세속의 욕심과 나쁜 습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법을 닦아 나아가는 데에만 신경을 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허공과 같이 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 순간도 놓치지 말자” 항상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맛지마니까야』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의 주인은 나, 나는 업의 계승자, 업을 만들고 업에 경계 지어지고 업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훌륭하거나 나쁘거나 내가 무슨 업을 짓던 간에 나는 그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업은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법구경』에서는 “전쟁에서 백만의 대군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한인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승리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떳떳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전생부터 따라 다니던 악업은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나쁜 업으로부터 승리자가 되고 선업이 쌓이게 되면 선업과 동거동락하며 좋은 도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아합경』에 “자등명·법등명”의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맑은 생각으로 그릇을 삼아, 따듯한 자비심으로 기름을 삼아 온 세상을 두루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발원하며 저는 순간순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 바람을 쐬며 논둑길을 걸으며 기분 전환을 할 때 제 마음이 정화가 되었고 바깥 경계를 항상 먼저 탓하던 저의 마음은 내면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알아가게 하는 불법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되었고 좋은 길벗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던진 돌에 제가 맞은 줄 알았으나 그 돌은 남이 던진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던진 돌이 결국 입이 되어 되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경계에 부딪히고 고통의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눈 앞에서 부서지는 물결에 방향을 잃고 혜매는 시간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신심과 수행력이 되어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강한 힘을 길러 주는 것이겠지요.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잠을 자듯이 항상 깨어 있으려 노력하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계에도 산란해지지 않았고, 그 자리의 본래 청청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온갖 상을 깨트려 버리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 듯, 자유로운 세상에서 함께하는 인연들과 밝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발원하며 『불설약사여래본원경』에 나오는 “약사여래진언” 독송으로 오늘 저의 작은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벽규리 바라바아라사야 다타아다야 아라하제 삼먁삼불타  
야 다나타 음 비살서비살서 비살사삼모아제 사마하”(3) ☩





## 임종臨終 환경

각연 / 대교과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방학 중 몇 번의 시다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업으로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임종 환경과 불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아 온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임종 전에 힘들어하거나,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며 삶을 더 회구하는 등 그 모습은 모두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좀더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임종을 맞는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가불자들의 귀의처인 스님들이기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반 대중보다는 더 많은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황망한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줄 수 있고 임종시에 유의사항을 잘 일려 준다면, 그것 또한 보살행을 닦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죽음 직전을 대비하는 여러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죽는 순간이 카르마를 정화하는 강력한 기회가 됨을 인지시키고 그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잘했던 행동을 일깨우고, 마음의 본성에서 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혹시 그가 살면서 큰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죽는 순간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간혹 망자를 옆에 두고 집안의 근심거리나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잘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죽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와 혼란을 주어 마음을 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갈래에 태어나도록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앞둔 이가 평소에 수행을 했다면, 마음의 본성에 담긴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외적인 호흡이 멈춘 후에 내적인 호흡이 종결되기 전에 이런 말을 일려줘야 합니다.

“아무개 여! 그대가 무엇을 보든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든 그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래 갖추어진 자연스러운 광명임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일려줘야 합니다. 이때 가장 수승한 것은 마음의 본성에서 쉬거나 수행의 정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승불교권인 우리에게는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조념助念 염불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죽음을 맞는 이가 스스로 기도와 헌신으로 부처님 정토를 구하여 이생에서의 삶을 참회하며 정화되기를 기원하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며 아미타불의 현현을 마음 깊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는 순간에 품은 한 생각이 죽음 이후에 중음 상태에서 깨어날 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종 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믿음을 내야 합니다.

죽음이란 이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는 것일 뿐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고 믿어야 합니다. 다만 미혹과 업장이 두터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니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기쁜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염불하여 염불심을 도와야 합니다.

염불 소리는 너무 크게도 작게도 해서는 안 되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분명하고 맑고 깨끗해야 임종인이 염불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불할 때 보통 요령과 복탁을 사용하는데 신경쇠약자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여 오히려 편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성으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은 4자 ‘아미타불’ 염송이 좋습니다. 자구의 숫자가 적어야 임종인이 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르므로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임종인에게 편안한 방식과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울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때는 바로 범부, 성인, 사람, 귀신 중 어디로 향할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임종인을 바로 셧기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 독을 가진 부류의 몸을 받게 되고 가족들이 우는 모습은 애정심이 일어나 그로 인해 세세생생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임종과 죽음을 준비하여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은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며, 자신의 본원을 잊지 않고 필경에는 깨달음을 얻는데 선량한 자량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 『불교의 세시풍속』을 읽고 -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혜철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고요하고 적적한 산 그림자 드리우는 한가한 산중생활의 속을 들어다보면 새해 첫날부터 설달그믐까지 매일 매일 다양한 법회와 행사, 기념일로 분주함의 연속이다.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와 풍속을 '세시풍속'이라고 하는데, 사찰에도 '불교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행사와 풍속들이 존재한다. 이 책은 불교세시풍속, 법회, 불교 행사 등에 대하여 중앙승가대학교 오인 교수스님이 발행한 책이다. 한 해 동안 절에서 행사한 것을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날짜별, 월별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고, 찾기 편하게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에서 불교세시풍속에 대한 정리와 문헌을 통해서 옛 스님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 사라진 불교 풍속을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많은 불교적 세시풍속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기서는 평상적으로 쓰는 행사를 몇 가지 발췌해 보았다.

1. 통알通謁 : 새해 첫날 사찰에서도 세배를 드린다. 이 의식을 통알이라고 하며, '세알' 또는 '축상작법'이라 한다.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세배를 통알, 대중스님들에게 드리는 세배를 세알이라 한다.

'통알이란 알謁로써 통通한다는 말이다. 알은 알현, 높고 거룩한 곳을 '보다. 아뢰다. 고하다. 여쭈다. 청하다.'라는 의미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진리의 자리, 부처님의 종지, 거룩함, 성스러움, 여여자연, 본성, 청정 등에 귀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알은 삼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첫 날에 대중스님들 모두가 부처님 전에 예불드리는 의식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성불도成佛圖 : 조선시대 청허휴정(1520~1604)이 창안하였다고 전해지는 불교전통놀이다. 조선후기에 독자적으로 발달한 불교수행 방식인 삼문수행(선, 교, 염불)을 즐거운 놀이를 통하여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다. 불교수행의 차제와 육도 윤회관을 제시하고, 염불, 참선, 교학의 수행을 쌓아,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불도는 사찰이나 가정에서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으며, 불심을 복돋우고, 놀이를 하는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주사위를 던지므로 자연스럽게 염불수행을 익힐 수 있다. 현대에도 사찰에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진을 쉬는 동안 성불도를 하면서 신심을 중장하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놀이방법은 서산대사의 『고기古記』와 이능화의 『중간기重刊記』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윷놀이나 승경도<sup>1)</sup>와 비슷하지만, 윷놀이처럼 서로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회향법은 대각을 이루면, 가사와 장삼을 입고 삼보전에 발원, 삼배를 하고, 대중이 대각을 이룬 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법문을 듣기도 한다. 또는 대각에 맨 먼저 성불한 사람은 중앙의 부처님의 자리, 두 번째 성불한 사람은 좌보처로 왼쪽, 세 번째 사람은 우보처가 되어 오른쪽에 앉는다. 법상과 법단을 마련하고, 밀가루로 귀가 늘어지도록 만들어 부처님처럼 분장하고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기도 한다.

남녀노소의 차별을 두지 않아, 연장자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성불하면 그에게 예를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것이, 법의 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린 스님이 대중 앞에서 법문하며 승려로서의 위의와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성불도 놀이는, 대중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염불수행 할 수 있는 놀이로, 다 같이 모여 환성과 염불소리가 온 도량을 메워 서로 간의 화합과 신심을 증장 시킬 수 있다.

3. 선요旋繞(탑돌이) : 『사문일용』에서는 탑을 도는 횟수에 따라서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마치고 탑을 도는데, 3번, 7번, 10번, 100번, 1,000번 한다. 탑을 3번 돌면 삼독이 멸하고 삼덕이 원만함을 상징하고, 7번을 돌면 칠지계가 청정하여 칠각의를 얻는다. 10번을 돌면 십사를 끊고 십력을 얻는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제위경』에 “부처님께 묻기를, 산화, 연향, 연등, 예배와 같은 공양과 선요는 어떠한 복을 얻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승기율』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여 탑의 공덕이 꽃과 향, 등을 공양하는 공덕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는 탑돌이의 5가지 복은 첫째, 후세에 단정하고 잘생긴 모습을 얻는다. 둘째, 음성이 좋다. 셋째, 천상에 태어난다. 넷째, 왕가에 태어난다. 다섯째, 열반을 얻는다.

『비니일용절요향유기』에서 탑을 들 때 지켜야 하는 행동으로, 첫째, 머리를 숙여 땅을 본다. 둘째, 벌레 등을 밟지 않는다. 셋째,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넷째, 침을뱉지 않는다. 다섯째,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 『사문일용』에서는 “탑에 예를 올리면 무량한 죄가 멸하고, 무량한 복이 생긴다.”고 하여 탑돌이를 강조하였다.

탑돌이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탑을 도는 숫자에 뜻이 있고, 공덕과 지켜야 할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여, 탑을 보면 자연스레 둘던 것을 의미를 새기며 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상 몇 가지 잘 알려진 불교 세시풍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책을 통해서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불교 풍속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불교세시풍속이 가지는 의미나 방법을 현대에 충분히 되살려서 수행방법, 포교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실정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자들이 같이 어울리고 함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⑤

1) 승경도는 양반들의 웃놀이를 말한다. 관직에 올라 출세하는 놀이라는 뜻이다. 승경도를 만든 이는 조선 초기 정승 하륜(1347~1416)이다. 『용재총화』에 의하면 승경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찰에서 성불도가 먼저 만들어졌고, 후에 이를 본따서 승경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法華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하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승속을 불문하고 서로 다른 것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양극단에 빠져 있다. '사자 몸 속의 벌레가 사자 몸을 스스로 파먹어 없애지, 몸 밖의 다른 벌레가 먹어 없애지 않는다'는 「범망경梵網經」의 말씀처럼 조직이나 단체는 내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붕괴되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합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며,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 사이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분단된 우리 조국처럼 의식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본다. 얼마 전,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부터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실의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단,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리고 불과 1%도 차이나지 않는 표로 대통령이 당선됨을 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아 늘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1일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 다녀왔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수권 수호'를 위해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했다. 전국승려대회 참여하기 전 운문사에서도 대회 참여에 대한 찬반의견이 학인스님들 간에, 또 어른스님과 학인스님들 간에 있었다.

이번 승려대회는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본사의 본말사와 전국선원수좌회, 전국비구니회 소속 스님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대 종단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비록 한 의원의 불교 폐쇄발언이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누적된 정권 차원의 종교편향과 불교 왜곡이 오늘날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불교사와 불교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위기감에서 승려대회가 봉행된 것이다. 이에 봉행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다른과 차별, 갈등과 분열의 견은 장막을 걷어내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고자 한다"는 대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승려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승려대회를 개최하려면 승려들이 모여 비상사태를 맞아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최소한 민주적 토론과정과 다수결, 설득과 동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승려대회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동안거 기간과 코로나 시국에 강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국면에서 대선 후보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승려대회의 역사와 전통,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중생들은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위기, 코로나 19 위기 등 어느 때보다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지멸止滅하는 진정한 길을 향하여 사무대중이 함께 번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 불제자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결국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마음과 더불어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지고 승려대회가 개최되었다. 승려대회는 이제껏 누적되어 왔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맞서 한국불교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여법하게 잘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5000여 스님들이 결집했음에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으며, 위의를 지키며 여법하게 대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고, 자성과 성찰의 참회를 시작으로 여법하게 진행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 어느 대회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만의 정수를, 수행인의 기본자세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종경예하께서 “모든 불자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 하게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法華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하네”라고 교시敎示를 내리셨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임을 상기하며, 기도발원으로 마무리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승속을 불문하고 서로 다름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양극단에 빠져 있다.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 몸을 스스로 파먹어 없애지, 몸 밖의 다른 벌레가 먹어 없애지 않는다’는 『범망경梵網經』의 말씀처럼 조직이나 단체는 내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붕괴되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합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며,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 사이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경』 52권 196 「주나경」에서 화합을 강조하시며, “아난아, 만약 대중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 그치지 않는 것을 보거든 육위로법六慰勞法을 행하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이 화합하도록 하라. 육위로법이란 인자한 몸가짐, 인자한 말씨, 인자한 뜻으로 모든 범犯한 자를 대하고, 모든 이익과, 깨끗한 계와, 올바른 소견을 모든 범犯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니라. 이렇게 모든 수행자가 싸움이 일어나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참고 견디어 물러나지 않기를 마치 몸에 붙은 불을 끄듯 급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아 방일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 그 싸움의 뿌리를 뽑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승려대회 개최’라는 종단협의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던 이유가 한목소리로 동참하는 것이 화합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책임을 직시하고 육위로법의 존해, 참회하고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

## 운문소식



▲ 신중기도



▲ 처진 소나무 마걸리주기



▲ 벚꽃 안행



▲ 면동만들기 대중율액



▲ 봄철 첫 지자自恣

- 3월 26일 청풍료에서 봄철 개학공사 및 송운 부교수스님, 한문불전대학원 연구과정 1명, 전문과정 4명, 치문반 11명 스님의 방부인사가 있었습니다.
- 3월 26 ~ 28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3일간의 신중기도 입재가 대웅전에서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28일 오후 2시 신중기도 회향 후 화재예방 소금 물기를 하였습니다.
- 3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된 제4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윤주스님께서 중사로 참석하였으며, 비구니 구족계 수계자 47명중 운문사승가대학 제 58회 졸업생 26명과 사집반 스님1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3일 삼월 삼짓날 연례행사인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 주기가 있었습니다.
- 4월 5일 치문반 스님들의 방부소감과 은사스님께 편지쓰기가 있었습니다.
- 4월 6일 저녁 예불 후 대중스님들의 벚꽃길 안행이 있었습니다.
- 4월 8일 봉녕사에서 봉행된 제30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일진 윤주스님께서 갈마위원회로 참석하였으며, 전체 수계인원 27명 중 사교반 14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0일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법사스님 : 화엄반 각연, 사교반 지명, 법행 스님, 사집반 보명 스님)
- 4월 11일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 4월 13일 연등 만들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4월 14일 학인스님들의 관물장 겸사가 있었습니다. 물건들의 정리정돈 상태와 불필요한 물건들의 소지여부에 대한 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4월 15일 저녁 예불 후 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전광 학장스님의 인사말씀, 영덕 학감스님의 자자에 대한 설명, 송운 부교수스님의 방부인사 및 학인스님들의 소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 4월 16일 아침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4월 18일 쑥 캐기 대중울력이 장군평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1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일진 윤주스님을 단주로 봄철 포살이 있었습니다.
- 4월 26일 봄철 수업 종강하였습니다.
- 4월 27일 회주스님께 종강인사와 겸하여 스승의 날 감사인사, 봄방학 출타 인사를 오미크론으로 인해 죽림헌에서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 4월 27일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자자 및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4월 28일 봄방학입니다. 5월 27일 개학예정으로 방학기간은 29일간입니다.

## 도와주신 분

• 김천 미륵암 일공 스님 • 불수 스님 • 김정미 • 주건우 • 한미영  
• 김진삼 • 정해옥 • 김수국 • 김기재 • 하목희 • 조서영 • 심송자  
• 조정일(대인경) • 이정숙 • 김형태 • 한기ぬ • 최현숙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청도 운문사 동호銅壺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향아리. 높이 55cm. 보물 제208호. 특이한 꼭지의 형태가 주목되며, 전체에 오색烏色을 띠고 있는 이 통제 향아리는 김로준甘露樽이라는 이름이 전하고 있어 불기佛器의 한 종류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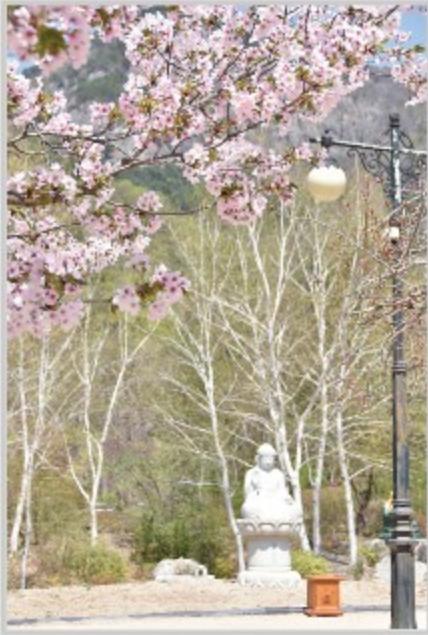
진로형탈사비상 座旁迦說事非常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니  
 긴파승두주일장 緊把繩頭做一場 화두를 굳게 잡고 한바탕 애쓸지이다  
 불시일번한철골 不是一番寒徹骨 한기寒氣가 한 번 빠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쟁득매화박비향 爭得梅花撲鼻香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황벽희운黃蘖希運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중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넘호 · 통권 제159호 · 2022년 5월 4일 발행 · 등록 1996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문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도현 · 편집위원 · 대겸, 해탈향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도현(황순중생원降順衆生願) / 삽화 · 현밀, 현지,  
마노, 선혜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